

#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통한 민족정체성 함양교육: 전남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Education to cultivate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anti-Japanes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the Yeosu  
area in Jeollanam-do

최 태 선\* Choi, Tae-Sun<sup>1</sup> (cts95@naver.com) | ORCID: 0000-0001-8073-284X

<sup>2</sup>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Seowon University)

## 국문초록 / ABSTRACT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 열사들을 위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열사들의 저항에 대한 발굴 노력과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원, 유적지 발굴, 공원화 사업 등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선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국적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헌신과 업적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독립운동 열사들에 대한 발굴과 업적을 기리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독립운동 열사들에 대한 미래세대로의 전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으로 전달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놀이, 게임 등 즐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열들에 대한 이미지, 게임을 통한 재인식 등에 대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열들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과 조명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교육방식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 제 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민족정체성,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Key words:** Japanese colonial era, Anti-Japanese movement, National identity, Yeosu region, Independence activis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00년 세월이 지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연구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으며, 지역의 후손들이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지자체의 문화원이나 문중, 각종단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초기단계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각종 통치기구를 설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억압, 수탈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행정기관, 경찰기구, 재판소 등의 억압기구, 조선은행, 철도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 등의 경제기관, 각종 교육기관 등을 식민지 통치에 맞도록 개편하였다. 이들 기구에는 일본인 관리를 등용하여 실권을 장악하도록 하였으며, 소수의 친일적인 한국인 관리도 임용하였다. 중앙에도 중추원이라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을 참여시켜 이들을 친일세력으로 보호·육성하였다[1].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어느 한 나라가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는 형태로 내려오지 않았다. 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면 주변의 약소국이었던 나라가 다시 강대국이 되거나 전혀 관련 없는 먼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은 풍요로움에 젖어들면 게을러지고, 나태하기 마련이며, 이는 곧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집단에 의해 종속당하는 처지에 임하게 된다. 개인이나 집단, 사회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역사적 반복을 거듭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아픈 역사의 반복을 경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걸핏하면 망국의 아픔을 경험하는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반복되는 역사적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어릴 적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 민족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도 있는 노력만이 또다시 역사적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방안임을 명심하고,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인과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지혜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방안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협력하면서 노력을 인식할 때 찾아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을 찾기 위한 지역의 순국열사들을 재조명해 보는 노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여수지역에서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열사들의 흔적을 탐색하고, 후손들에게 선열들의 저항의식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형성시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후손들에게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형성시키는데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그동안 여수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다양한 흔적들을 기록한 문헌연구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여수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내서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II. 여수지역 독립운동과 윤형숙

## 1. 여수지역의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항거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유형의 항거를 하는 조선의 백성들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유관순을 대표하는 3.1 만세운동을 들고 있다. 유관순 열사는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치되어 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 한용운 등 애국지사, 조봉암 등 사회운동가, 오세창, 방정환 등 교육 및 문화가, 박인환 시인, 이영민 야구인 등 근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인의 묘소가 있다. 애국지사의 묘소를 ‘영원한 기억봉사단’이 단장한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인근 용마산에 고구려 보루, 신석기 유적을 품고 있는 곳이다[2].

망우리공원은 가슴 저민 공간이다. 만해 한용운(1879~1944), 위창 오세창(1864~1953), 호암 문일평(1888~1939), 소파 방정환(1899~1931) 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이 이곳에 잠들었다. 유관순(1902~1920) 열사의 묘도 이곳에 있다. 192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당시 이태원 공동묘지에 묘비도 없이 파묻혔다. 현재 유관순 열사의 유해 위치가 불분명한 이유다. 1935~36년 이태원 공동묘지는 일제가 군용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망우리공원으로 이전했다. 이때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포함해 이름 없는 2만8000여 분묘를 한꺼번에 화장하여 합장시켰다[3]. 유관순 묘역 입구에는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 게시되어있고 그 옆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참배객을 맞이한다[2]. 따라서 유관순 열사의 무덤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미래에도 유구히 흐를 것이다.

여수지역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났으나 여성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윤형숙을 들 수 있다. 윤형숙은 1900년 9월 13일 여수시 화양면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윤치운으로부터 순천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집에 맡겨져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서학원을 이수한 뒤, 광주지역 최초의 여성중등교육기관인 수피아여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키우게 되었다[4]. 그 당시 수피아여고 교사였던 박애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만큼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아직 사회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보전달이 느리고, 사회전반의 지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절대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1] 유관순 생가

## 2. 혈녀(血女) 윤형숙

일제강점기에 여수지역에서 대표적인 저항운동가로 윤형숙을 꼽는다. 우리는 흔히 3.1 운동을 통한 여성독립운동가는 유관순으로 대표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끈질기게 투쟁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있다. 윤형숙도 그중의 한명이다. 1919년 3월 10일 수피아여고의 학생이던 윤형숙은 광주의 장날을 이용하여 계획된 만세시위에 앞장서게 된다. 주도자들의 계획에 따라 광주교 및 천변에 수백명의 군중을 지휘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장으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형성하고, 수피아여고 학생들과 함께 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고, 일본 헌병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행진하던 윤형숙은 일본 헌병들의 총칼에 태극기를 들고 있던 왼팔과 오른쪽 눈을 실명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중상을 당한 채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비방병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4]. 3.1운동 당시 일본 순사들의 만행은 악독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형숙은 굴하지 않았다.

윤형숙은 남원의 1912년부터 변요한 선교사의 자택에 거주하며 성서학원(은성학교) 보통과정을 다녔고, 일제의 방해로 은성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광주에 있던 수피아여고로 전학하여 1981년부터 1919년까지 고등과정을 수학한 것으로 나타난다[5]. 그 당시 들불처럼 만세운동이 번졌던 1919년 3월 광주에서도 민중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는데 참여하였다. 윤형숙은 당시 광주 수피

아여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이 학교에는 민족의식이 남달랐던 박애순(1896~1969·건국훈장 애족장) 교사가 재직하고 있었다. 박 선생은 고종 황제의 승하 소식과 일제에 빼앗긴 나라 안팎의 사정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광주 만세운동은 3·1운동 전부터 움트고 있었다. 일본 도쿄 유학생 정광호가 귀국해 2·8 독립선언을 청년들에게 알렸다. 서울 유학생인 최정두와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례하고 서울 시위에 참가한 김철도 귀향해 남궁혁의 집에 모여 거사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독립선언서, 태극기, 격문 등을 밤새 만들어 장날인 8일 서울과 똑같은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 다시 작은 장날인 3월 10일로 거사일을 바꾸고 학생들과 읍민들에게 참가를 독려했다. 이에 박 선생도 김복현, 김강으로부터 독립선언문 50여통을 받고 학생들에게 취지를 설명했다.

“당연히 참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학생들은 수피아홀에 숨어 밤새 치마를 뜯어 태극기를 만들었다[6].

윤형숙 열사는 독립이 된 후에도 불구가 된 몸으로 “외눈박이 선생님, 외팔이 선생님”이라 불리며 전도와 문명 퇴치운동을 계속하였다. 안타깝게도 윤형숙 열사는 1950년 9월 28일에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요즘세대 우리는 상상도 못 할일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가!

윤형숙 열사를 비롯하여 희생된 모든 순국열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물결로 이어져 국가, 종교, 문화의 벽을 넘어서길 바란다. 윤형숙 열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으나 유족이 없어 현재는 여수 시청 앞 게시판에 걸려있다[7].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일본 순사들의 감시와 칼날에도 윤형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독립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이러한 윤형숙의 노력은 수피아여고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광주시내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만세운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 윤형숙

1898 ~ 1950

1898년 전남 여천군 화양면 청무리 출생  
1919년 3·1 독립만세시위 참가  
1950년 사망

“앞서간 여성 항일운동가”

[그림 2] 윤형숙 초상

### Ⅲ. 독립운동가들의 흔적과 교육

#### 1. 여수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여수시문화원에서 발행한 여수지역의 대표독립운동가 100인을 들고 있다. 이들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국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책자에 등

장하므로 다시 한 번 여수지역 독립운동가의 명단을 제시하여 그 흔적을 상기시키고, 기억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표 1〉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100인 명단

임병찬	강진원	김병학	김성택	정기채	이병현	김백평	이형명	윤자환	김철주
김순배	윤형숙	정두범	박오기	배세동	유봉승	이선우	유봉목	문 균	곽찬신
노병주	김형석	오우홍	김인식	김용환	장평완	이창희	윤경현	오늘보	정학조
백인열	정보한	진자미	곽재석	최완규	윤 장	손양원	김충홍	김초암	주재년
이상문	강화선	이봉금	정영한	박창래	최풍룡	김귀문	김민석	지익표	조병석
김재곤	손대형	성상규	황병익	박노운	오영섭	박용수	김권문	김우곤	이기풍
최용식	주원석	원정상	원종상	조병호	정충조	여운중	여도현	김양호	강병담
황상기	박채영	유재성	김준일	유지선	김원석	강석종	박우섭	하재학	이효동
한수홍	최석규	김경택	김재명	김수평	장점암	이민두	오말수	고정불	박우중
유병옥	김수인	윤성만	박대옥	김용구	김건호	박종문	이용기	유정암	김경윤

자료출처: 여수독립운동사, 여수문화원 2022.

## 2.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

일제강점기 여수지역의 독립운동을 위해 저항했던 선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병활동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임병찬, 강진원, 김병학, 정기채, 이병현, 김준길, 김원석, 박우석
-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김성택
- 만세시위로 옥고를 치른 김백평, 이형명, 김철주, 김순배, 정두범, 박오기, 배세동, 유봉승, 강화선, 이봉금
- 조선독립만세 운동을 위한 태극기를 제작하다 발각되어 옥고를 치른 이선우, 유봉옥, 하재학
-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다 붙잡혀 옥고를 치른 윤자환
- 만세시위로 왼팔이 잘리고, 오른쪽 눈을 실명당한 윤형숙
- 일제의 민족차별, 민족말살정책 철폐와 독서회 활동을 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른 문균, 오늘보, 정학조, 백인열, 정보한, 진자미, 곽재석, 김초암, 이상문, 박창래, 김민석, 지익표, 김재곤, 손대형, 성상규, 이용기
-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른 곽찬신, 노병주, 김형석, 오우홍, 김인식, 김용환, 윤경현, 김충홍, 최용식, 원종상, 조병호, 여도현, 김양호, 김수평, 박종문
- 항일 노동투쟁을 하다가 발각되어 옥고를 치른 장평완, 이창희, 조병섭, 정충조, 여운중, 이효동
- 일본 동경에서 독립운동 방안을 구상, 계획하다 옥고를 치른 최완규
- 항일 비밀경사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다 옥고를 치른 윤장
-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옥고를 치르고, 한인들을 위해 봉사한 손양원, 이기풍

- 조선독립을 위한 항일학생활동으로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주재년, 정영한, 김우곤, 박채영, 한수홍, 최석규, 고정불, 박우중
- 조선 청년계몽 운동으로 붙잡혀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최풍룡, 김권문, 주원석, 원정상, 강석중, 김정택, 유병옥
- 총독정치에 대한 저항활동을 사주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김귀문, 강병담, 장점암
- 일본인 교사 축출, 한글사용 허용, 근로보국대 반대 등을 주도하다가 고문을 받은 황병익, 박노운, 오영섭, 박용수
- 민심을 어지럽힌다고 구속되어 복역한 황상기
-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며 제국주의에 저항한 유제성, 유지선, 김재명
- 공산주의 사상과 인쇄물 발행으로 붙잡힌 박대묵, 임용구, 김진호
- 일본군 활동에 대한 군사상 비밀을 전파하다 복역한 이민두, 오말수, 유점암, 김경운
- 구국비행단의 군자금 모집으로 발각되어 옥고를 치른 김수인
- 신사참배 거부와 전쟁고아들을 보살핀 윤성만

### 3.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 선열들의 발굴과 교육적 의미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2년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또 다른 전쟁이 2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자유무역경제에서 세계는 점점 더 자국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면서 강대국인 미국에서조차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는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 살아남는 국가의 주장이 맞다는 인식을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안일과 평화에서 벗어나 또 다른 망국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자라나는 어린 세대부터 기존의 성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신적 재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과거의 역사적 아픔을 통해 지역에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선열들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교육적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의미를 재인식하는데 있다.

첫째, 지역의 선열들에 대한 제조명과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활동은 물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관찰, 글짓기, 그림대회 등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성인들의 관심과 애착도 필요하게 된다. 즉, 지역의 선열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가정교육, 지역의 선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공원, 사진전, 각종행사 등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들이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고 후손들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한 권모술수, 경제적 부의 축적이 삶의 행복이 아니라는 확고한 삶의 태도, 이웃과 함께하는 상부상조 정신의 실천,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1]	여수시문화원(2022) 여수독립운동사, 일천인쇄기획. pp.146.
[2]	대한뉴스(2021). 중랑구 광복회, 망우역사문화공원 유관순 열사 묘역 찾아 참배. 10월 21일자.
[3]	중앙일보(2019). 유관순 열사의 무덤은 왜 찾을 수 없을까? 2월 28일자.
[4]	여수지역독립운동가유족회(2018-19). 윤형숙 열사 언론보도 모음집. 자료: 여수시. pp.10-11.
[5]	김호욱(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및 추모제: 의혈지사 윤형숙을 기억한다. 여수지역독립운동가협회. PP.38-56.
[6]	서울신문(2018). [손성진의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 원팔 잘린 채 오른팔로 든 태극기... ‘남도 유관순’ 초인적 항일. 11월 19일자.
[7]	여수일보(2019). 외눈박이 윤형숙 열사를 기억하다! 3월 4일자.